

안개

비

흰 안개꽃을 말려다가 머리맡에 걸어놓고
부우연 사진들을 주욱늘여 머리맡에 걸어놓고
그렇게 잠들었다 일어나니
눈에 서린 안개가 부엌계 부우엌계

무엇이든 결국엔 다 흙가루인 것 마냥 되어 버린다.
무언가가 불에 탄다.
공기에 의해 분해된다.
흙가루로 남는다.
공기에 의해 섞여 퍼진다.
어디에나 퍼져 버린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모든 것은 공기인가.
공기가 잠시 뭉쳐있는 바람에
잠시 동안만 어떠한 형상이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은 공기인가.
그렇다면 나 또한 공기인가.
오래전에 죽어버린 사람일 수도
비행기 안에서 본 창밖의 구름 속 무지개일 수도
내 맞은편 사람의 낡은 운동화일 수도
저기 저 아프리카 사막 선인장의 가시 일수도
심해 물고기의 움직임의 소리일 수도 있는
어딘가에서 온 공기들이 뭉쳐져
잠시 동안 나라는 형상이 공기를 마시고 산다.

공기들이 말을 한다.

순간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만진다.

허망하고 허망하고 또 허망한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묘지의 관 속에 묻힌듯
아득한 저 곳에 나를 묻고

허여멀건한
멀건한
하늘인 듯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보다 더 진한
허여멀건한 무언가들이
하늘거리는 듯
요동치며 정신없이 뒤섞여 흘러다니는 하늘
멀건한
허여멀건한
하늘거리는 듯
멀건한 하늘인 듯

이상적인 것
이상한 것

기록에 관한 생각들을 해왔다.

우주의 모든것은 기록이라 볼 수 있고 기록은 기억의
기억들이며
기억의 흔적들이고
기록만이 남고
심지어 신체속의 '뇌'라는 것도 기록의 소굴이며 보통의
사람들은 그 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을
신체에 고이고이 넣어 다니고
기억 상실증이라면 놀라자빠지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흔적들을 남겨 기록을 남긴다.

모든것은 나를 포함 사라지기 마련이라
기록은 나에게 벌레가 죽어갈 때의 버둥거리는
움직임같은 마지막 발버둥같은 것이다.

기록이라는 것 자체도 기록을 원하는 내 자신도
기억이라는 것도 흔적이라는 것도

기억과 기록이 없는 어떤 무언가의 세상에 관한

서늘한

따뜻한 목욕물과 체리즙의 붉은 아지랑이
무언가에 속해 있을 때 몸이 목욕물에 빠지듯 완전히 빠져 버렸을 때

마음에게 몸을 지배 당한다.

인간은 진화하지 말았어야 했나

망원으로 가는 택시기사님의 이야기

부산에서왔다는 오빠의 말을듣고 자기는 부산계집을 오년이나 만난 적이 있다며 개나리가 필때 그 계집이 결혼한다며 떠나갔다고 했다 오년은 만나고 오년은 잇느 라 보냈단다 정년 퇴직을 하고 택시를 십년째라고 하니 칠십대이겠지 개나리가 이 내 고개를 돌린다고 한다 봄바람이 처음 불어오는 것 같은 날이었는데 기사님도 그 바람을 맞고 생각이 나셨나보다 우리가 일년조금 넘었다고 하자 봄가고 겨울가는 줄 모르겠다며 말했다 우리는 그 말에 동감했고 그래서인지지난겨울이 빨리 간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유골함

물속에 넣어서 이끼가 덮도록하기

영혼

자연적인것들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 자연적인, 인공적인 것들에 영혼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담쟁이 넝쿨 몰래심기

여섯살즈음의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꿈이다.

꿈이라고 치자.

방안에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이 나란히 누워있다.

그 중 방문 바로 아래 맨 끝자리에 누워있는 내 육체에서 투명해
보이지만 내 모습과 똑같은 영혼 같은것이 ..

영혼같은 것의 상체만 일어난다.

육체와 분리 된 채로 일어난다.

옆을본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와같이 영혼같은 것만이 일어나있다.

모두 다 같은 자세로 기이한 얼굴들을 하고 나를 쳐다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달리고 있는 택시 안

기사 아저씨는 앞만보고 달리고 있다.

내 옆에 여자가 있다.

달리던 차안에서 갑자기 여자가 기이한형태로 쪼그라든다. 앞좌석과
뒷자석 사이 좁은 틈 사이에 있다.

기이한 얼굴을 한 채로 쳐다본다.

꿈 속에서의 나는 매우 경악했고

그 순간 여자가 손을뻗어 내 손을 낚아채 놓아주지 않으며 내
손등을 손톱으로 마구 찍어댄다.

눈 속에 파묻혀 따듯하게 식어가며 죽고싶다.

그 꽃들은
그가 죽자
흔적도없이
죽어버렸다고
나는 왜
그 꽃들을
보지 못하고
그도
보지 못하고

인간이 징그러운 것
인간들이 징그럽다는 기분을 진심으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들이 먹고 싸고
그 많은 인간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징그럽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그래요.
나같은 인간 객체 하나하나들이 셀 수 없을만큼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징그럽지않나요.
그 모습을 생각하다보면 머리가 저려와서 그만뒤요.

결국에는 흰 것이 된다.

시는 비명이 될 수 있다.

유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

그 숨의 공기가
소용돌이처럼

그 소용돌이가
마치 우주처럼

별이없는 우주에

거대해서 알수 없을만큼의
공간을 파헤쳐
검은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안에서
둥둥 떠 다니다가

폭 가라앉는다

그 검은것들이 누른다

핏방울이 툇 떨어져고
툇툇툇툇툇툇툇
마지막 방울이 튕겨올라서
다른 곳을 핏빛으로

흰 안개꽃의 꽃말은 슬픔과 죽음

그 밤에
그 두 사람은

모든것이 하얗게만 서리우던
그 겨우날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나
창창에서린 빛들만

당신이 입술을 벌리면 꽃잎과도 같으니

내가 끌리는 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았다.
날개.. 나비, 새, 천사, 설탕

초여름 밤의 달큰한 공기의 냄새..
이 냄새는 조용해진 순간에만 맡을 수 있다
달고 조금은 서늘한..
스치듯 지나치며 맡게된다

어느 샌가부터
꼭 호흡이 가빠져서 발음을 잘 할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꼭 흘리듯이 뱉는다.
어젯밤에는 꼭 잘못들은 것만 같았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과 존재

온기가 좋아서요...

온기
따뜻한 기운.

마음의 모양같은 것에는 바늘이 다닥다닥 꽂혀있다
빼내려하면 피가 좌르르 흐르고
그대로두자니 압정들마저도 녹이슬어 붉격게 사라진다.

그의 행동들을 곱씹고 말들을 곱씹는다.

이상하다.
정말로 유령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의 무언가

이상한 나날들이다.

무엇인가 눈치채기 어려운
무언가가 무엇인가가

끝도없는 시작도 없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선택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Hosp.No.8295993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거나 풍경이 영화같이 느껴지고,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험,
어지러움, 불투명한 막에 둘러 쌓여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느끼고,
외출 시 이러한 양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으로 인해
적응 상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함.

환자는 정서적으로 depressive, dissatisfied, unhappy 하고,
lonely, empty 하며, anxious, tense, worrisome 한 상태로 추정됨.
또한 외부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과 경한 수준의 신체 증상을 동반한
비현실감을 호소하고 있음.

다차원 스트레스 대처척도-적극 망각, 체념
무망감이 더운 증폭되었을 수 있겠음.

은행

향 나무 사철나무

포도 나무잎

넝쿨 딸기

산 나무 딸기

망개 나무잎

은행 잎

단풍 잎 노랑 빨강

마 잎

도토리

모과잎

개나리

국화

코스모스 보라

코스모스 연보

코스모스 흰색

복새풀

내 집은 어디인가
내 안식처, 도피처로 도망친다

다른무언가가 나 사이에는 존재 해 있다.

삶이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
내가 만일 죽는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밤하늘을 계속 올려다보니
밤은 깊어 가는데
밤하늘은 밝아만 온다.

걸고 걷다보니
도로는 보이지 않았고
흐린것들은 밝은 것들이 되었다.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작품은 그게 다야

식물때문에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죠

숨이 가뻐다
긴장이 심해지고
속에 뱀이 굴뚝거리는 것 같으며
어지러웠다.

“색이 변하고 시들어가는게
참 찬란해서 싫네요.”

마음은 수면중에 외계세계로부터 고립하고 그 표면에서 떨어진다...

그 이름이 태어나면
먼저 존재했던 그 이름은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잊혀질 것인가.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남기기 위함인가 잊혀지기 위함인가

자신은 귀신을 믿고 하느님도 믿는다 하였다.

안개가 흘러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자욱했다.
저 멀리 하늘과 바다가 연결되어 일렁이고
높은 파도가 쏟아져 내렸다.
하얀 거품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
다하얀 머리의 사람은 발목을 걸어붙이고 손발과 얼굴을 씻어냈다.
무언가에 홀린듯이 파도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었다.
따듯할 것만 같았다.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간다.
물에 몸을 맡긴 채로 둥둥

잠자리의 날개같은

사실 시는 보이는게 아니야...
영혼 같은 거예요...

강렬함 후의 모호한 잔여감

모든것은 연기인가?
당신들의 정체성은 진짜인가?

불그스름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